

‘일·생활균형’의 시소를 타다

지난해 가장 많이 확산된 용어로 ‘워라밸’을 빼놓을 수 없다. ‘Work and Life Balance’의 줄임말로 일과 생활의 균형을 중요시 하는 사람들에게는 직장이나 직업을 선택할 때 고려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다. 고용노동부는 2017년 『지역별 일·생활균형 지수』를 처음으로 발표하는데 이어 최근 기업들의 모성보호 및 일·생활균형 제도 활용 실태 등에 대한 『2017년 기준 일·가정 양립 실태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대전시의 워라밸 수준은 어떻게 나타났을까?

대전 일·생활균형 지수 38.4점, 서울, 부산에 이어 ‘3위’

일·생활균형 지수는 일과 생활 간 시간, 인식·태도, 성별 균형 등을 종합해 평가한 것으로 ‘일’, ‘생활’, ‘제도’, ‘지자체의 관심도’ 4개 영역, 24개 세부지표로 구성됐다. 17년 기준 대전의 일·생활균형 지수는 100점 만점에 38.4점으로 1위 지역인 서울보다 4.7점 낮았지만, 전국(37.1점)보다 1.3점 높은 수준으로 상위 지역에 자리했다. 영역별 대전의 지수는 일 8.2점(22.1점 만점), 생활 15.1점(30.1점 만점), 제도 9.6점(25.0점 만점), 지자체의 관심도 5.5점(22.8점 만점)으로 상위 지역에 자리했다. ‘제도’ 영역은 17개 시·도 중 두 번째로 높았으나, ‘지자체 관심도’는 11위로 하위권에 머물렀다.

대전 일·생활균형 지수(2017년 기준)

단위: 점

영역별 점수

일

- 총 근로시간
- 초과 근로시간
- 휴가기간
- 유연근무제 도입률
- 유연근무제 이용률

생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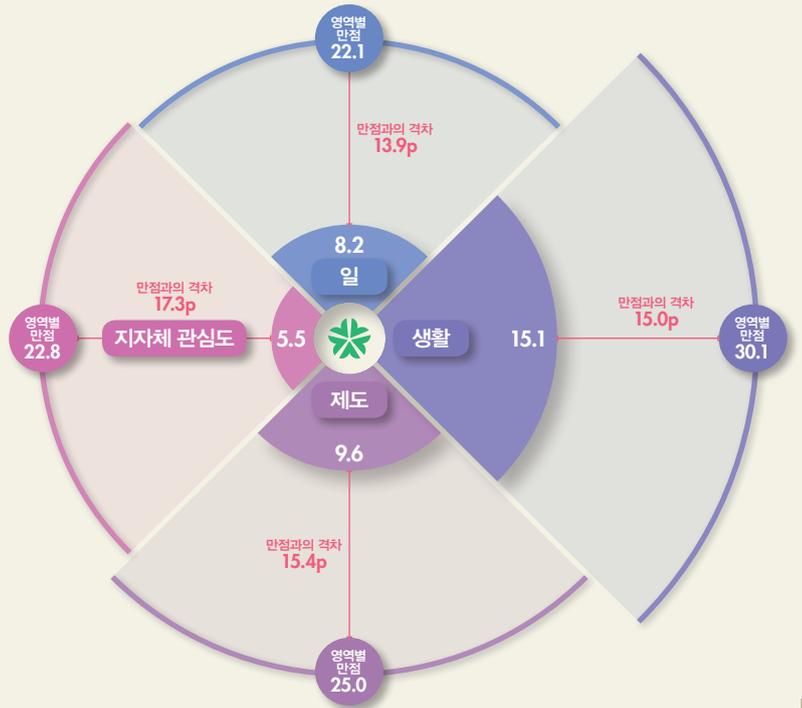
- 남성 가사노동시간 비중
- 여성취업에 대한 견해
- 가사분담에 대한 견해
- 일과 가족생활 우선도
- 평일 여가시간
- 평일 여가시간 충분도
- 일·여가생활 균형 정도

제도

- 여성 육아휴직 사용 사업장
- 남성 육아휴직 사용 사업장
-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제도 사용 사업장
-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 사업장
- 국공립 보육시설 설치율
- 초등학교교실 이용률
- 일가정 양립제도 인지도

지자체 관심도

- 일·생활 균형 조례 유무
- 일·생활 균형 제도 확산 노력
- 담당조직 유무
- 일·생활 균형 관련 교육·컨설팅
- 가족문화 관련시설 현황



총점



발행처 대전세종연구원
대전여성가족정책센터
발행인 박재욱
편집인 주혜잔
디자인 디자안스튜디오203 대전
발행일 2019. 6. 30.

1) 지수구성: 영역과 세부지표에 적용된 배점은 계층분석법(각 항목 간 중요도에 대한 상대비교)에 따라 산정

2) 지수산출: 세부지표별로 설정한 기준값**에 현재 도달한 정도를 종합하여 산출

*추세 분석을 통한 2023년 추정값(지역별 추정값 중 최댓치) 등을 세부지표별 기준값으로 설정

** (참고) 17년 지수 전국 평균은 37.1점으로 현재 기준점에서 37.1% 도달한 상태이며, 각 지역에서 연평균 약 10점을 상승시켜 최상위 지역 수준으로 개선한다면 2023년에는 100점에 도달할 수 있는 점수 의미함.

3) 출처: 고용노동부 보도자료(2018. 12. 21.), www.moel.go.kr

**육아휴직 등
일·생활 균형 제도,
인지도에 비해 시행 낮아**

일·가정 양립 실태 조사 결과, 대전 '배우자 출산휴가' 평균 대비 인지도 3.2%p↓, 활용도 0.8%p↓

고용노동부는 모성보호 및 일·생활 균형 제도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일·가정 양립 실태 조사』(2017년 기준)를 실시했다. 조사결과를 토대로 ‘육아휴직’, ‘배우자 출산휴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4가지 제도에 대해 지역별 평균값을 인지도와 활용도 축 위에 위치를 표시*함으로써 16개 시·도(세종 제외)의 제도별 인지도 및 활용도 수준을 살펴봤다.

‘육아휴직’ 지역별 인지도·활용도(2017년 기준)

단위 : %

대전시 사업체 중 육아휴직에 대해 알고 있는 사업체 비율은 62.2%, 실제 활용한 근로자가 있는 사업체 비율은 6.4%로 평균(인지도 57.1%, 활용도 3.9%)보다 높은 1/4분면에 위치해 있다. 광주, 울산, 충북, 전북, 경북과 함께 인지도 및 활용도가 상대적으로 우수한 지역에 속한다.



‘배우자 출산휴가’ 지역별 인지도·활용도(2017년 기준)

단위 : %

대전은 배우자 출산휴가에 대해 인지도 69.2%, 활용도 3.3%로 평균(인지도 72.4%, 활용도 4.1%)보다 모두 낮은 3/4분면에 자리했다. 16개 시·도와 비교해도 인지도는 13위, 활용도는 11위로 상대적으로 모두 미흡한 수준이다. 따라서 ‘배우자 출산휴가’에 대한 인식개선, 실효성 제고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